학교자치조례 혼란…교육계 보·혁 대립 격화

광주교육청, 재의 수용…'공'은 시의회로

내년 교육감 선거 연계 갈등 장기화 우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여 21일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공'을 넘겨받은 광주시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교육계는 또 다시 진보와 보수간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자치조례를 둘러싼 대립은 내년 6월 치르는 교육감 선거에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어쩔 수 없었다"=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학교자치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재의 요구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교과부의 재의요구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압도적인 지지로 재의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빠르면 내달 14일 투표=재의 요구를 받은 시의회는 빠르면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은 원안 가결과 부결 두 가지만 가능하다. 가결되면 조례는 확정되고, 부결되면 조례는 폐기된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는 25일 시교육청과 간담회를 열어 재의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입법정책관과 고문변호사에게 교과부가 지적한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진보-보수 갈등 격화 조짐=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과부가 이미 대법원 제소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조례 제정 여부는 빨라야 7월께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자연스럽게 연계돼 대립은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발의한 광주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며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례를 반대하는 학교자치조례 폐기를 위한 시민연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조례를 절대 재의결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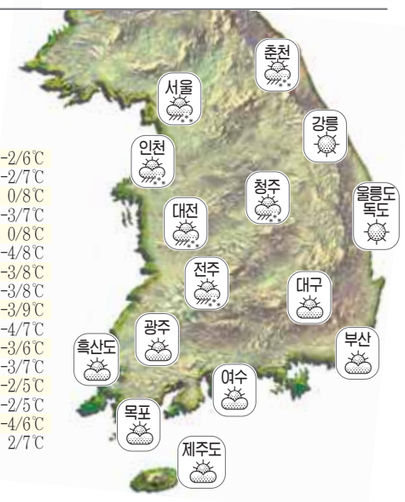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1분 해짐 18시 21분 | 달뜸 15시 04분 달짐 04시 27분

구름 사이 보름달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 오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6℃
목 포	구름많음	-2/7℃
여 수	구름많음	0/8℃
나 주	구름많음	-3/7℃
완 도	구름많음	0/8℃
구 례	구름많음	-4/8℃
강 진	구름많음	-3/8℃
해 남	구름많음	-3/8℃
장 흥	구름많음	-3/9℃
순 천	구름많음	-4/7℃
영 광	구름많음	-3/6℃
진 도	구름많음	-3/7℃
전 주	흐리고한때비또는눈	-2/5℃
군 산	흐리고한때비또는눈	-2/5℃
남 원	구름많음	-4/6℃
흑산도	구름많음	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북서~서	0.5~1.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12:15	05:05 18:00
여수	07:30 19:34	00:53 1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 씨						
최저/최고	-4/5	-3/8	0/9	3/9	0/10	1/11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따라 학동삼거리 유흥업소 정비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광주시 동구 학동 삼거리 일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광주시 동구는 21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무등산 등산로 들머리인 학동 삼거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새로운 명소로 바꾸는 정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2688㎡ 면적에 유흥업소 11개 업소가 영업중이어서 평소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으로 외지인이 많이 찾는 상황에서 광주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구는 이에 따라 증심사의 관문인 학동 삼거리 일대 유흥가와 낙후 건물을 철거한 뒤 의재로에서 남문로로 가는 일방로를 폐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소공원과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역에 백범 김구기념관이나 무등산 탐방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학동 삼거리 일대는 김구 선생이 1946년 광주를 찾았을 때 전달한 정치후원금을 재원 삼아 조성한 '백화마을 정착촌'이 있었던 터다.

또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욱일승천기를 형상화해 도시계획을 한 곳으로 근대 도시계획사에서 일제의 만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졸업사진 찍자 21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12학년도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전교조 교사 이적단체 첫 적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여·52)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나로호 성공발사 공로…육군 31사단 대통령 표창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소장 박병기·사진)은 21일 나로호 발사 안전지원작전 공로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부대 창설된 뒤 19번째 표창으로, 전군 최다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기록(19회)과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다.

31사단은 지난달 30일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해안경계작전과 대테러 작전으로 나로호 성공 발사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31사단은 지난 2009년 1차 발사와 2010년 2차 발사 등 371일간 특공여단, 특전사 대 테러부대 등과 함께 경계작전을 벌였다. 마지막 3차 발사 때에는 2번이나 발사가 연기돼 6개월간 불볕더위와 혹한 속에서 매복작전을 펼쳤다.

박병기 사단장은 "여수엑스포에 이어 나로호 안전 지원작전까지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형 사단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